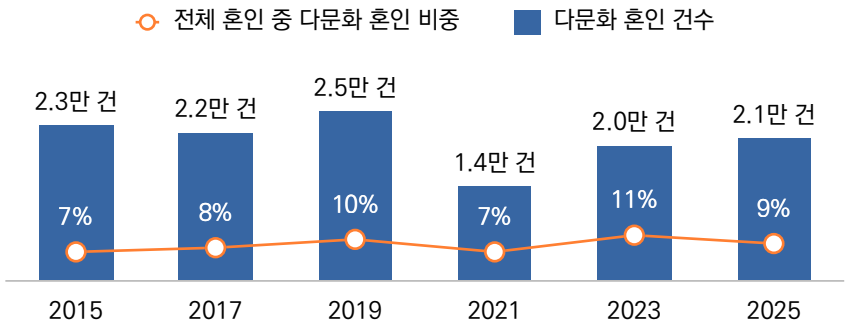
[2025 다문화 혼인 통계]

우리나라 다문화 혼인, 전체 혼인의 9%(100쌍 중 9쌍) 차지!

- 최근 국가데이터처(구 통계청)가 발표한 '2025년 다문화 인구통태 통계'에 따르면, 2025년 다문화 혼인은 2.1만 건으로 전체 혼인의 9%(100쌍 중 9쌍)를 차지했다.
- 다문화 혼인은 2019년 2.5만 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극심했던 2021년 1.4만 건까지 급감했으나, 이후 다시 반등하여 202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.

[그림] 다문화 혼인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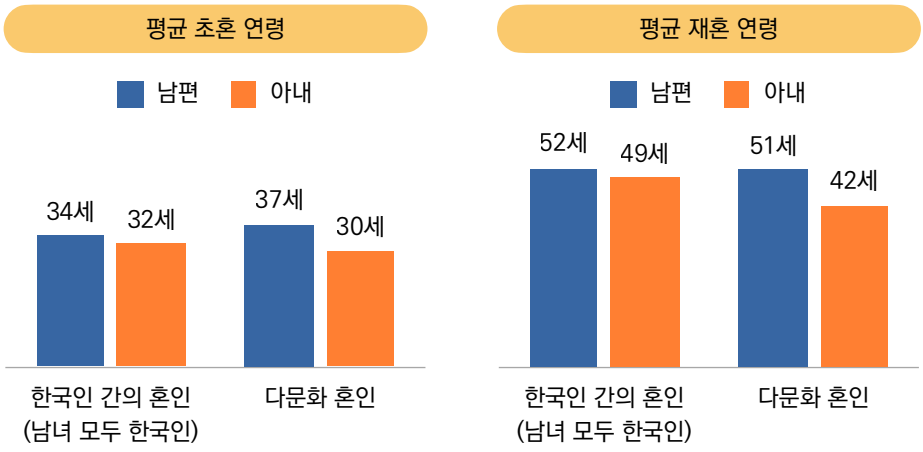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, 2026.11.05.

다문화 혼인 남녀 연령차, '초혼 7세·재혼 9세'까지 벌어져!

- 평균 혼인 연령을 한국인 간 혼인과 다문화 혼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, 초혼과 재혼 모두 다문화 혼인의 남녀 연령차가 한국인 간 혼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초혼의 경우 한국인 간 혼인은 남편 34세, 아내 32세로 2세 차이에 불과했으나, 다문화 혼인은 남편 37세, 아내 30세로 7세 차이를 보였다. 재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한국인 간 혼인이 3세 차이(남편 52세, 아내 49세)인 반면, 다문화 혼인은 남편 51세, 아내 42세로 9세 차이까지 늘어났다.

[그림] 평균 혼인 연령 (2025)

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, 2026.11.05.

다문화 혼인 국적, 남편은 '미국' vs 아내는 '베트남'이 1위!

- 출신 국적별 다문화 혼인 비중(한국 국적 제외)을 보면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(7%), 중국(6%), 베트남(4%)이 상위권을 차지했고, 아내의 경우 베트남(25%)이 가장 높고, 중국(15%), 태국(9%)이 뒤를 이었다.

[표]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 순위* (2025, 각각 상위 3개)

남편 출신 국적	아내 출신 국적
1. 미국 (7%)	1. 베트남 (25%)
2. 중국 (6%)	2. 중국 (15%)
3. 베트남 (4%)	3. 태국 (9%)

※출처 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,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, 2026.11.05.
*각각 한국 국적(한국인 남편 74%, 한국인 아내 19%)은 제외